**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0-28절>**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최근에 저는 주로 창세기 1장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새벽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번 새 메뉴로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처음 대할 땐 새로워서 흥미로울 수 있지만 다 먹고 나면 부담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이미 드신 음식을 잘 소화시킨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듣고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앞부분에 기록된 천지창조 기사는 이 묵직한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바다와 땅과 식물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여섯째 날에 땅에 짐승과 사람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사역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총 일곱 번에 걸쳐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창조사역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생겨난 피조물들을 주목해 보셨고,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보시기에 안 좋았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얘기를 일곱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다양한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에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 구절 바로 뒤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명령하십니다. 즉, 당신의 피조물들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온 세상을 채워나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물고기와 새를 지목하시고 그것들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양성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표하시고 난 후,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이는 각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가 무시되고 다양성이 파괴되면서 이루어지는 성장과 발전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상어만으로 가득찬 바다, 독수리만으로 가득찬 하늘, 백인들만이 주도하는 인간세상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성장과 발전이 좀 더디더라도 모든 다양한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좀더 좁혀 얘기하자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욕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좀 불편해도 서로 배려하면서 어울려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즘 저는 2월 5일에 체코와 한국 청년들이 함께 참여할 “체코-한국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코와 한국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들 드리고, 한국의 문화를 체코인에게, 체코의 문화를 한국인에게 각각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를 갖습니다. 음악을 통해 함께 즐기고 교제하는 뮤직 페스티발 순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사를 왜 하는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서로간에 장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되는 길이자, 예수님 자신의 기도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17:21)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세리도 있었고, 반로마 혁명을 꾀하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되기 힘든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이후 예수님을 믿는 모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교회는 14년째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를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셨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낙심에 앞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계획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얻는 은혜와 도전을 저 자신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는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이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일,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가야하는 고된 여정인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든 만큼 그 길에 놓인 장애물 하나를 통과할 때의 감격과 희열은 더 크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부터, 저는 이 여정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이 의미를 갖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따로 떨어져 배타적으로 존재할 때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모여 어우러질 때입니다. 개개의 고유한 가치가 침해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위험할 수 있다면, 하나의 중심을 향해 수렴하며 서로 어우러지지 않는 다양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렴하여 서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는 서로 다른 것들을 똑 같은 것으로 만드는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의 중심을 향해 함께 모여 통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속에는 ‘회복’과 ‘연합’,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욕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좀 불편해도 서로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태초의 피조세계는 이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이 구현되는 생명력 넘치는 환경이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꿈꾸는 세상도 그와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기로 결심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실뿐 아니라, 이에 추가해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데,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을 “모든 피조물에 대해 사람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의미는, 그에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으로써 온 피조세계의 샬롬을 위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진정 사람다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되신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피조물이 다 귀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가 온 피조세계의 샬롬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성취할 키플레이어(Key-Player)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너무 많이 훼손시켰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너무 아파하고 있고,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독성/핵폐기물, 도시매연, 지하수오염 등 지구공동체의 이상징후들이 심각한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조세계의 고통은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다시 우리 인간의 샬롬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단연코 이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인간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주의적 소비 패턴은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깁니다. 경제적 세계화의 경쟁적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지배하려는 욕망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결국 그것은 폭력으로 표현됩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탐욕과 결핍이 아닌 감사와 만족의 경제학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또한 경쟁과 폭력이 아닌 겸손과 사랑, 평화의 정치학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스타일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1:15).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은,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돌보며 사는 삶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믿기에,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와 더불어 사는 다른 생명들을 돌보고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적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내 주위의 누군가가 나에게 죄악으로 일그러진 형상을 드러내며 나를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반사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반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이 체코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관점을 따라 엄밀히 말하자면, 이 체코 땅의 주인은 체코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체코인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체코 땅으로 초청하셨을까요?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먼저 온 체코사람들과 함께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뭔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내 일이 급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신경쓰기 쉽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욕심과 경쟁에 의해 형성된 내 좋지 않은 생활습관 중에 하나 정도를 고쳐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피조물의 창조사역 후에는 바로 이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창조사역 후에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아 너만 생각하며 살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요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온 피조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가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십시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갈 뿐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는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돌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배려하며 어울려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와 더불어 사는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돌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살며**

**배려와 돌봄의 삶을 성실히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피조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